

# 2026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지에스리테일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4.24	강서N타워	8/10	2	6	16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최정혜, 정사강, 박상오, 신영수, 김다래, 한명삼, 서현선, 심재웅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배재성(사업지원본부장), 허남준(사업지원부문장)
- 경영진 외 : 이준호(심의팀장), 오주연(부장), 남효주(매니저) 채호석(방송사업지원팀장), 오세영(부장), 박인진(매니저)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	-	-	-	-	11	11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	-	11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미심위 조치 사항	(최정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며, 고령의 전문가 출연으로 신뢰도가 높아져 오인 가능성이 있음. 또한 성분 구성상 실제 체감 효과와 특정 성분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방미심위 조치 사항	(한명삼) 형식적으로는 일반식품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건강식품처럼 인식되어 오인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안전장치가 오히려 역설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방미심위 조치 사항	(정사강) 형식상 문제는 없으나 내용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알부민 자체에 대한 효능 논란 등 상품 구조적 리스크 존재.	시청자위원회에서 제시된 상품 구성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함. 이에 따라 상품 구성 및 중량 정보가 소비자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막, 판넬, 방송 멘트 등 안내 표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구성 내용과 추가 증정 여부가 혼동되지 않도록 관련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또한 해당 시청자위원회 논의 결과를 관련 제작 및 편성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동일·유사 사례 발생 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임.	
방미심위 조치 사항	(김민정) 소비자가 방송을 흘러 들을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식품'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3월
방미심위 조치 사항	(서현선) 본질적인 리스크는 방송이 아닌 알부민 자체에 있으며,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적 역할 필요 여부에 대한 고민 필요.		
방미심위 조치 사항	(신영수) 전문가(의사) 출연으로 인해 의약품 수준의 기능을 기대하게 되는 오인 가능성이 있음.		
방미심위 조치 사항	(김다래) 건강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으나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표현이 마케팅과 혼재된 측면이 있으며, '최고 함량' 등 표현은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로 보기 어려움.		

방미심위 조치 사항	(김다래) 건강 관련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특 정 질병·계층 타겟 표현은 지양하고 상품정보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전달 필요.		
방미심위 조치 사항	(박상오)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점 에 대해 높은 주의의무가 필요하며, 주의문구의 크기 및 색상 등 가시성 이 부족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 음.		
방미심위 조치 사항	(심재웅) 권위자 발언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 가 높은 상황에서 건강정보가 일반 적 수준에 그치고 ‘섭취 필요성’으 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건 강기능식품이 아님을 보다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총 건수		10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6. 01. 01.~ '26.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윤경희	751216	現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 부장	-	1년
김호중	670707	現 시민 옴부즈맨 대표	-	1년
서아론	840430	現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	1년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 <http://www.gsretail.com/gsretail/ko/footer/about-gsshopviewers>

####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선임기간)
위원장	최정혜	•現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이사	한국유통학회	유통단체	(‘25.10~’27.09)
부위원장	한명삼	•現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본부장 •現 사단법인 로멤복지회 감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사회소외 계층	(‘25.10~’27.09)
위원	심재웅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前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25.03~’27.02)
위원	정사강	•現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前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24.10~’26.09)
위원	신영수	•現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現 한국유통법학회 이사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단체	(‘25.10~’27.09)
위원	서현선	•現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 •現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단체	(‘25.10~’27.09)
위원	김민정	•現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前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회장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소비자보호 단체	(‘25.10~’27.09)
위원	김다래	•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 팀장 •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 간사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소비자보호 단체	(‘25.10~’27.09)
위원	김현호	•現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10~’27.09)
위원	박상오	•現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10~’27.09)
<b>변 동 사 항</b>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김다래</b> 가격·용량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10.5kg+0.5g’ 표기가 작고, 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중간 시청자 의 혼동 가능성 존재함.	상품 구성 및 중량 정보가 보다 명 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판넬 표기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 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서현선</b> 근거가 있어 허위는 아니나, 오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됨. 10.5kg과 0.5kg을 명확히 구분했 다면 오인을 줄일 수 있음. 선택형 구성 특성상 오인이 발생하 기 쉽고, 선택 A는 0.5kg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아 이해가 어려움. 허위는 아니지만 더 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성으로, 추가 구성 대상이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 문 제라고 생각함.	본품과 추가 구성 중량이 보다 직관 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안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정사강</b> 쇼호스트 설명은 있으나 강조가 약 해 소비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 ‘11kg’보다 ‘500g 추가’에 초점이 가면서 오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 며, 글자 확대도 필요함. 일부는 ‘11kg+500g’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가독성 개선 필요 함.	실제 구성 중량 안내에 대한 가독성 및 전달 방식 보완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한명삼</b> 처음에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 나, 자세히 보니 10.5kg+500g=11kg 구조. ‘11kg’, ‘500g 추가’, 가격만 강조 되어 그 부분만 인식되었고, 이후 에야 포함 구성임을 이해함. 선택형 구성 또한 혼란 요인으로 작용.	선택형 구성 및 추가 증정 안내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 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임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박상오</b> 허위 광고는 아니며, 오인 가능성은 개인 인식 차이로 봄. '500g 추가'는 글씨 크기로 구분되어 있고 11.5kg으로 오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중간 시청 시 혼동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 흐름상 11kg 포함 구성 인지는 가능하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봄.	상품 구성 안내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표현 및 자막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심재웅</b> 일반적인 흡쇼핑 구성이나 '500g 추가' 표현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표현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신영수</b> 합포장 출고로 '추가 제공'에 대한 체감이 낮아지면서 혼동 발생. 포장 비용 상승으로 합포장 유지 필요성 존재.	합포장 구성에 대한 안내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김민정</b> “포기김치 11kg” 및 “500g 추가 증정” 표현은 소비자가 실제 구성 중량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본품과 증정 구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막, 판넬, 방송 멘트 등을 통해 실제 구성 중량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본품 및 추가 구성에 대한 안내 강화와 표현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최정혜</b> 상품 구성 자체는 사실이나, 본품 중량과 추가 제공되는 500g 구성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임. 특히 kg 단위 판매가 일반적인 상품 특성을 고려할 때 구성 중량 표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실제 구성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기준 보완을 검토할 예정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심재웅</b> 소비자가 “11kg에 500g 추가 증정”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있으나, 방송 중 멘트·자막·판넬 등을 통해 실제 구성인 “10.5kg + 500g 추가” 내용을 반복 안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 실제 중량인 10.5kg 안내를 추가로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방송 중 실제 본품 중량 안내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b>김현호</b> 상품 중량을 “총 11kg”으로 명시하고, “10.5kg에 더하여 0.5kg 추가 증정”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상품 중량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상품 구성 및 중량 안내가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